

중증 천식발작 환자에서 말초혈액내 호산구와 호중구 증가 여부에 따른 임상적 차이

전남의대 알레르기내과학교실 이세련, 최인선, 정종원*, 문장식, 고영일
기관지조직이나 기관지폐포세척액 또는 객담내에 호중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중증 천식환자들이 있으며, 이들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.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과 흡연하는 천식환자에서 객담내 호중구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중증 천식발작으로 입원한 많은 환자들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말초혈액내 세포와의 관련에 대한 것은 없는 실정이어서 중증 천식발작으로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호산구와 호중구가 모두 증가되어 있는 군(I군, n=4), 호산구만 증가되어 있는 군(II군, n=30), 호중구만 증가되어 있는 군(III군, n=25), 호산구와 호중구가 모두 증가되어 있지 않는 군(IV군, n=41)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. I, II군에 비해 III군은 연령이 유의하게 높고, DLCO/VA는 유의하게 낮으며, 폐기종이 유의하게 많았다(0, 16.7, 61.9%). II군 보다 III군은 PEF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pH는 유의하게 높아서 전체적 발작 중증도는 서로 차이가 없었고, I군이 가장 심하고, IV군은 제일 가벼운 경향을 보였다. 치료 후 퇴원 전 FEV₁ 평균은 I~IV군 순으로 93.0/79.4/54.7/69.6%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, △FEV₁ 평균은 329/131/115/115%로 차이가 있었다. 이상의 결과로 호중구 증가는 연령 및 비가역성 기류폐쇄와 관계가 있으며, 천식발작의 중증도는 호산구나 호중구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었다.

호흡기 알레르기질환에서 환경관리: 집먼지진드기에 민감한 천식환자에서 항원비투과 커버의 효과

인하의대 내과¹, 동양공업전문대학 화학공학과², 연세의대 내과³
김철우¹, 김동희², 박중원³, 홍천수³

Background: Allergen avoidance is the most important treatment strategy in allergic diseases. Although encasing bedding in allergen-impermeable covers is the most effective house dust mite (HDM) control measure, its efficacy and clinical effectiveness is uncertain in usual domestic environment in Korea.

Objective: A double-blind trial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 of impermeable covers without any other form of mite-reduction measures.

Methods: Thirty-five patients with HDM-sensitive mild-to-moderate asthma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impermeable (Allergy-X-Cover) or non-impermeable (placebo) covers for their beddings. The level of HDM major allergen in dust from patient's bedding was measured at baseline and every 2-month interval. Visual-analogue scale for asthma symptom, asthma-specific QOL and PEF were assessed at baseline and every 2-month interval. Spirometry was performed at baseline and after 6 and 12 months.

Results: Compared with placebo group, the amount of dust collected from bedding was decreased in active group. Active group showed decreased concentration of HDM Group 1 allergen in bedding dust during the first 6 months. Symptom score and visual-analogue scale was improved in active group more than in placebo group. In active group, PEF was significantly improved during the study period, and FEV₁ was improved at 6 months. Asthma-specific QOL was improved in both group during 1 year.

Conclusions: These results suggest that simple application of impermeable cover without any strict management plan provide incomplete but significant reduction to allergen exposure and clinical benefits.